

# AG 누빌 수영 태극마크 주인 찾는다

### 국가대표선발전 내일부터 남부대 수영장 박태환·안세현·백수연 등 간판선수 총출동

한국 수영 간판스타들이 빛고를 광주에 뜬다.

대한수영연맹이 개최하는 2018 국제 대회 수영국가대표 선발전이 27일부터 나흘간 광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다.

올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AG)에 출전할 경쟁과 다 이빙 종목 국가대표를 이 대회 성적으로 뽑는다.

이번 대회에는 박태환(인천시청), 안세현(SK텔레콤), 김서영(경북도청) 등 종목별 우리나라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해 아시안게임 태극마크를 놓고 기량을 겨룬다.

박태환은 호주에서 석 달여 전지훈련을 하고 이번 선발전에 참가하기 위해 24일 귀국했다.

올해 처음 공식대회를 지르는 박태환은 첫날인 27일 자유형 400m를 시작으로 28일 자유형 100m, 29일 자유형 200m, 30일 자유형 1,500m 경기를 차례로 뛴다.

2006년 도하,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 아시안게임 2회 연속 3관왕에 올랐던 박태환은 4년 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땀으나 대회 개막 전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

서 금지약물이 검출돼 메달을 모두 박탈당하고 18개월 선수자격정지의 징계까지 받았다.

자신의 네 번째 아시안게임이 될 올해 대회가 박태환에게는 명예회복의 무대인 셈이다.

국내에서는 마땅한 적수가 없어도 그에게 이번 선발전의 의미가 남다른 이유다.

박태환은 “아직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수라는 걸 알릴 수 있는 좋은 해로 만들고 싶다”고 다짐하면서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치르는 이번 선발전이 이후 훈련 강도나 페이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를 정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수영의 새 역사를 쓴 안세현과 김서영도 이번 선발전을 착실해 준비해왔다.

안세현은 부다페스트 대회 여자 접영 100m와 200m 두 종목에서 한국신기록을 3차례나 작성하며 접영 100m에서는 5위, 200m에서는 4위에 올라 한국 여자 수영 선수로는 역대 대회 최고 성적을 잇달아 갈아치웠다.

이번 선발전에서 안세현은 여자 접영 50m·100m·200m에 참가한다. 세



박태환

안세현

김서영

종목 모두 현재 한국기록은 안세현의 것이다.

그는 1월 호주로 건너가 마이클 불(호주) 코치의 지도 아래 현지 대회 출전과 훈련을 병행하다 3월초 귀국한 뒤 국내에서 담금질을 이어왔다.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 개인혼영 200m에서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개인혼영 종목 결승에 진출해 6위를 차지한 김서영도 다시 물살을 가른다.

김서영은 이번 선발전에서 자신이 한국기록을 가진 개인혼영 200m와 400m에 출전한다.

남자부에서는 자유형 50m와 접영 50m 한국기록 보유자인 양정두(인천시청), 배영 50m와 100m 최강 원영준(전남수영연맹)도 아시안게임 태극마크를 노린다.

각각 평영 50m와 100m 한국기록을 가진 주상훈(오산시청)과 문제권(서귀포시청)은 평영 세 종목에서 한 치 양보 없는 레이스를 펼친다.

여자부에서는 평영의 베테랑 백수연(광주시체육회)과 배영 100m·200m 한국기록 보유자 임다솔(아산시청) 등이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한 시험대에 오른다.

수영연맹이 마련한 참가기준기록을 통과한 선수들만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개인종목별 ‘결승 1위 기록’을 바탕으로 국가대표 자격을 가린다.

지난해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랭킹의 아시아권 기록을 대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한체육회 파견 인원 내에서 국가대표를 선발한다.

/연합뉴스



## “5월 정신 계승 빠짐없이 참가”

###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47명 참여 교통사고전사회로 안전의식 홍보 활동

“5월 정신을 계승하자는 마라톤 대회 취지에 공감하면서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이하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5·18 마라톤대회는 의미가 깊다.

5·18 정신의 계승이라는 5·18 마라톤대회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난 대회부터 빠짐없이 참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공사 직원들 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지인들과 함께 마라톤을 뛰면서 80년 5월의 정신과 뜻을 기리고 있다. 이번 대회 또한 가족·지인을 포함해 총 47명의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도로공사는 매년 5·18 마라톤대회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5월 정신 계승도 가능한데다, 가족과 지인간의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1석 3조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반응이 뜨겁다.

올해의 경우 교통사고 사진전시회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의식에 대한 중요성과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에 대해 홍보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지역민들이 교통사고 예방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최종 홍보 목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카드형 하이패스 단말형태에서 유심형으로 변경된 하이패스 단말기인 행복단말기에 대해서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5·18의 아픔을 아는 지역민으로서 이를 기리기 위해 대회를 기획해 주신 전남매일 마라톤 대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면서 “도로공사는 지역사회와 공감하는 공기기업이 되고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흠으로 전력 질주”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가 2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오كل랜드 애슬레틱스와 홈경기 8회말 벨트레의 안타때 흠으로 쇄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국선경 감독

홍채린

강유림

서지수

## 광주대 국선경 감독 대학 대표팀 지휘봉

### 홍채린·강유림·서지수 대표팀 승선

광주대학교 여자농구부 국선경 감독이 제41회 이상백배 한·일 대학농구대회(이상백배) 여대부 사령탑을 맡는다.

한국대학농구연맹은 오는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인천도원체육관에서 열리는 이상백배에 출전하는 남녀대표팀을 선발했다. 이상백배는 한·일 남녀 대학선발팀이 3경기씩을 치른다.

이상백배 대학선발팀 감독에는 여대부는 국선경 감독이, 남대부는 김상준 감독(성균관대)이 각각 선임됐으며 선수는 12명이다.

광주대에서 홍채린(포워드)과 강유림·서지수(이상 센터·3년) 등 3명이 여대부 선발팀에 이름을 올렸다.

이상백배는 한국과 일본의 농구 역사에 공을 세운 고(故) 이상백 박사의 뜻을 기리는 대회로 1978년 시작된 양국 대학농구선수들의 친선교류 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선경 감독은 “여러 대학 선수들이 모인만큼 조직력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한일 대항전인 만큼 좋은 경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선수들과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 목포, 2022년 전국체전 유치 확정

### 경제유발효과 3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촉매

목포시가 오는 2022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대한체육회는 25일 제14차 이사회를 개최, 현장실사단의 보고를 받은 뒤 목포시가 제103회 전국체전 개최지로 적합하다고 결정했다.

목포시는 이사회에서 전국체전 개최 유력후보지로서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유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대영 현장실사단장은 목포시의 범시민 서명운동(4만2,190명)과 뜨거운 환대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분야별 질의응답과 경기장 현장 방문 등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다면 전국체전 개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목포시는 전국체전 개최 전까지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올해 하반기 체전추진 데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2019년 상반기 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목포는 360여개 숙박업소와 4,000여개 음식점이 영업 중인 가운데 전국체전 기간 동안 3만여명의 선수와 응원단이 방문해 1주일을 머무르면 약 3,0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전국소년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제,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전남도체육대회 등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도 잇따라 개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전국체전은 목포



25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목포시가 2022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확정된 뒤 전라남도 및 목포시, 전라남도체육회 관계자들이 기뻐하며 성공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국내 최대 스포츠 이벤트”라며 “선수, 임원 등 3만여명에게 목포의 맛과 멋을 보여주 고, 해상케이블카, 근대역사문화 등 준

비된 관광인프라와 문화예술, 해상스포츠가 융합하는 문화예술체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강성우 기자

## 전남 대표 김준홍 사격월드컵 세계신

### 남자 25m 속사권총 38점 금메달 명종

전남 대표 김준홍(28·KB국민은행)이 남자 25m 속사권총 결선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

김준홍은 25일 경남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국제사격연맹(ISSF) 월드컵 남자 25m 속사권총 결선에서 38점을 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준홍의 점수는 2014년 7월 중국 베이징 월드컵에서 리카르도 마제티(이탈리아)가 세운 기존 세계기록(35점)보다 3점이 더 높다.

이번 대회 은메달은 독일의 크리스티안 라이츠(34점), 동메달은 역시 독일의 올리버 가이스(29점)에게 돌아갔



다. 김준홍은 2014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며 이름을 날리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한국 속사권총 첫 올림픽 입상을 노렸지만, 본선 8위에 그쳐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고향인 전남인 김준홍은 한국체대 시절부터 줄곧 전국체전에서 전남 대표로 활약하고 있다.

/연합뉴스